

숲길의 바람직한 정비방안 수립을 위한 이용객 인식 조사

A Study on the Visitor's Perceptions for the Desirable Trail Maintenance

권태호¹ · 유기준² · 김동욱^{3*}

대구대학교 산림자원학과¹ · 상지대학교 관광학부² · 대구대학교 대학원³

I. 연구목적

등산로는 사람이 자연과 가장 근접하는 시설로서, 숲과 같은 자연생태계 공간의 내부를 연결하는 기반시설이다. 그러므로 등산로 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정적인 영향은 곧바로 주변 생태공간으로 전달되면서 산림생태계 및 환경자원의 훼손 및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산림생태계 및 환경자원의 훼손 및 악화 될 뿐만 아니라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건전하고 자연친화적인 등산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등산로에서의 훼손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공원관리주체는 등산로 훼손요인을 분석하고 지형 및 토성 등 물리적 여건, 관련 자원의 효율적 보전성, 탐방객 이용행태 등을 고려하여 훼손제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등산로 훼손제어 방안은 크게 훼손원인이 되는 이용객 행위 자체를 직접 조절하는 직접적 방안과 교육 또는 홍보 등의 매체를 통해 이용객 행위를 간접적으로 변형시키는 간접적 방안이 고려 될 수 있다. 등산로에 대한 훼손문제의 해결은 이용주체인 이용객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원인규명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을 찾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따른 훼손이 심화되고 있음에 따라 대구시 주변 숲길의 산행인구에 대한 인식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숲길의 바람직한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는 대구광역시 주변 자연공원, 도시공원 3곳의 주요 등산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공원 등산로 이용행태 및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4년 3월 한 달동안 주요 이용객거점 등산로에서 임의 표본추출 방식을 응용하여 이용객 직접기입방식으로 실시되었다(한국환경생태학회, 2004).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적 이용형태

(1) 이용경험

전체 응답자의 90.5%가 이전에 조사대상지의 이용경험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범어공원 큰 차이 없이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등산목적

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범어공원을 방문한 이용객들의 주요 이용목적은 건강유지를 위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으로 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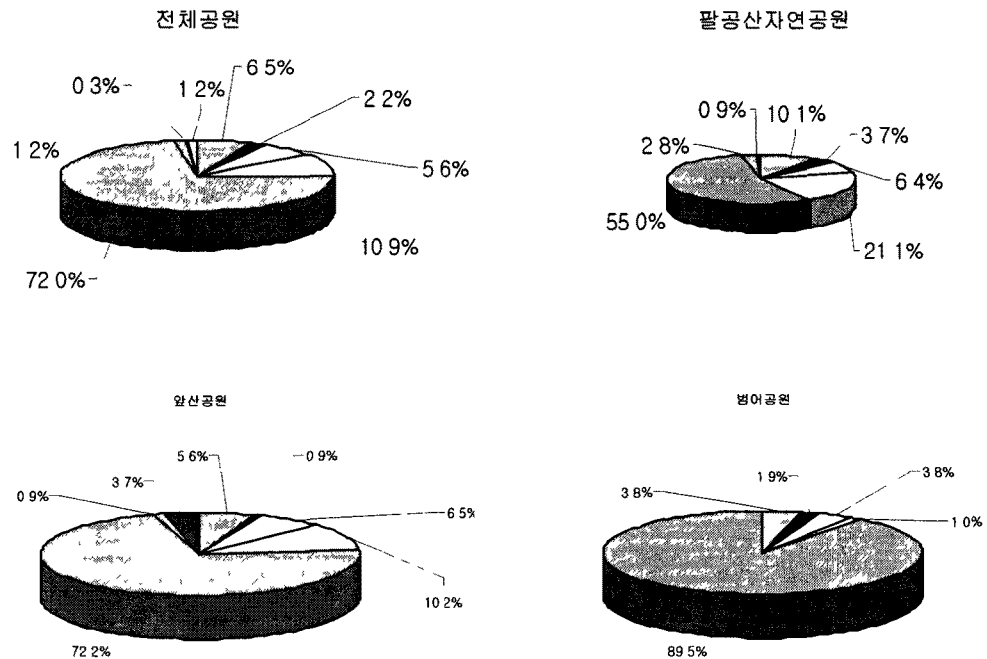


그림 1 등산 목적

2. 등산로 상태에 대한 인식

(1) 등산로 훼손정도에 대한 인식

등산로 훼손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이라고 하는 경향이 25.9%로인 반면에 ‘훼손이 없는 편’이라는 경향이 36.0%인 것으로 보아 각 공원에 훼손정도가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도시근린공원인 범어공원에 경우 훼손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41.2%가 ‘훼손의 정도가 심한 편’이라고 나타났다.

(2) 훼손 유형 및 심각성

등산로 이용과 관련된 9개 훼손 유형들을 추출하여 등산로의 훼손정도를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 유형별 심각성 정도를 5점 척도(1:전혀 심각하지 않다 - 5:매우 심각하다)로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3)훼손의 주 원인

공원 훼손의 주 원인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전체 응답자들이 훼손의 원인을 이용객의 부주의한 이용(39.7%)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팔공산자연공원, 앞산공원, 범어공원에서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팔공산자연공원과 범어공원에서는 관리소홀을 두 번째로 지적한 반면 앞산공원에서는 이용정보부재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등산로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인식

정비 및 관리는 누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질문에는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전체 응답자의 63.1%로 정비 및 관리에 이용객의 인식이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등산로 이용한 후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에는 팔공산자연공원의 경우 지형적 특성상 ‘경사진 곳의 계단 또는 손잡이 등의 시설도입 및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산공원에서는 ‘깊게 파인 훼손된 등산로 노면의 정비’를 가장 요구했으며 이 항목은 각 공원에서의 모두가 높게 나타나 노면 정비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범어공원에서는 “등산로 주변에 생성된 지름길 폐쇄”에 대한 항목이 높

있던 것으로 보아 공원의 등산로 개설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에 의해 자연적인 발생과 더불어 관리적인 측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자연훼손방지책으로 이용객에게 인식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조사는 공원 등산로 관리를 위해 등산로 이용행태 및 이용에 관련하여 이용객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의 주요 공원인 자연공원형인 팔공산자원공원과 도시공원형인 앞산공원 및 범어공원의 등산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금의 차이는 보이지만 이용객들의 목적이 건강에 관심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건강유지와 휴식의 차원에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실태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근린공원인 범어공원의 경우 여성이용객이 남성이용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등산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력소모가 적은 가벼운 산행과 극기 활동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등산로 훼손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을 관리자의 이용객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이용객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고 등산로의 이용행태와 목적, 이용객 연령에 따른 등산로 관리 및 정비의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등산로 특성상 정비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용객인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객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자연공원이나 도시근린공원 내 등산로가 새롭게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관리 및 정비에 대한 대처 방안이 부족하다면 등산로로 인한 자연훼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공원 등산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평가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 용 문 헌

1. 권태호, 유기준(2004) 국립공원 탐방로 이용에 대한 이용객 인식. -북한산, 치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생태학회 18(4): 437-445.
- 2 권태호(2004)숲탐방 활동에 의한 숲길 훼손실태 및 정비 방안. 생명의숲·산림청 주최 2004년 자연친화적인 숲탐방문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 23-53쪽
- 3 대구광역시. 2003. 공원·유원지 현황. 170, 186, 262쪽.